

도서관인의

窓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와 어린이 독서교육운동

최정태(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아이들의 첫번째 선생님은 부모이고, 아이들의 첫번째 학교는 가정이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성공 하는데 부모들이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이 일찍이 그리고 자주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다.
- 바바라 부시 -

타임(TIME)지에서 25년 간 기자로 활동한 여성언론인 보니 엔젤로(Bonnie Angelo)가 최근에 펴낸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 First Mothers』(나무와 숲, 2001. 704쪽)에서 “그림자형 퍼스트 레이디였던 바바라 부시여사는 다른 전(前) 대통령들의 어머니들 보다 구식이다. 하지만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어머니였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난독증(難讀症)이었던 조지 W. 부시를 위해 매주 토요일 플리시 카드를 들고 읽기연습을 시켰다.”라고 하여 대통령과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엔젤로는 출판사 초청으로 10월 31일 우리나라에 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한 인물은 어머니인 바바라 부시여사를 꼽고, 미국 대통령들에게 끼친 어머니들의 영향력을 새삼 강조했다.(중앙일보, 2001. 11. 1.)

그 어머니에 그 며느리라고 했던가. 현재 부시 대통령의 부인 부시(Laura Welch Bush)여사도 시어머니를 닮아 어린이 독서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녀가 고향 텍사스에서 사서(librarian) 생활을 했다고 해서일까.

지난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WTC)가 폭파될 때 그 폭파 장면이 연일, 연시에 TV에 반복 방영되었다. 온 세계는 쌍둥이 빌딩이 처참하게 내려앉는 모습을 비디오게임을 보듯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매일 쳐다보는 TV의 폭파장면을 보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공포심과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부시여사가 즉각 나섰다. 그는 CNN, NBC, CBS 등 메이저 TV사를 직접 찾아가 이 장면을 멈추어 달라. TV를 끄고 대신에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책을 읽어 주도록 요청했다. TV는 퍼스트 레이디의 간곡한 진언에 감동하여 즉각 시행 조치되었다.(소년조선일보, 2001. 9.21.)

나는 몇 해 전, 미국의 텍사스 A&M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부시대통령도서관(Bush Presidential Library)을 방문하고 그 견문기를 『圖書館文化』에 「우리도 대통령기념도서관을 만들자」(제38권 제6호: 1997. 11/12)와 「대통령기념관, 기록관, 그리고 도서관」(제40권 제5호: 1999. 9/10)이라는 제목으로 '제언' 과 '논단'

에 발표한 일이 있는데 그 때마다 지면의 제약으로 모두 소개하지 못했다.

미국의 대통령도서관(Presidential Library)은 미국 국민들이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도서관이다. 그곳은 그의 시대와 관련되는 통치사료만을 갖추는 기록관(archives)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기념비적 전시물과 개인송배를 위한 박제된 자료만을 비치하는 박물관도 아니다. 그곳은 대통령의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며, 보존소를 겸한 연구센터이자 접근과 이용을 도모하는 일종의 특수도서관(special library)이다. (<http://gopher.nara.gov> : Mission and background of the presidential library system)

여기에는 그의 행적과 함께 관련되는 도서와 문서를 수집하고, 당해 대통령의 통치사료와 파일 그리고 국내외 그의 관련 기록과 주변인물들의 구증(口證)자료를 함께 모이게 하여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심있는 사람에게 공개하며, 동시에 주민의 '열린도서관'(open library)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와 같이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과 동시 그의 고향 또는 출신교에 이러한 기념도서관을 지어 퇴임 후의 활동을 여기에서 펼친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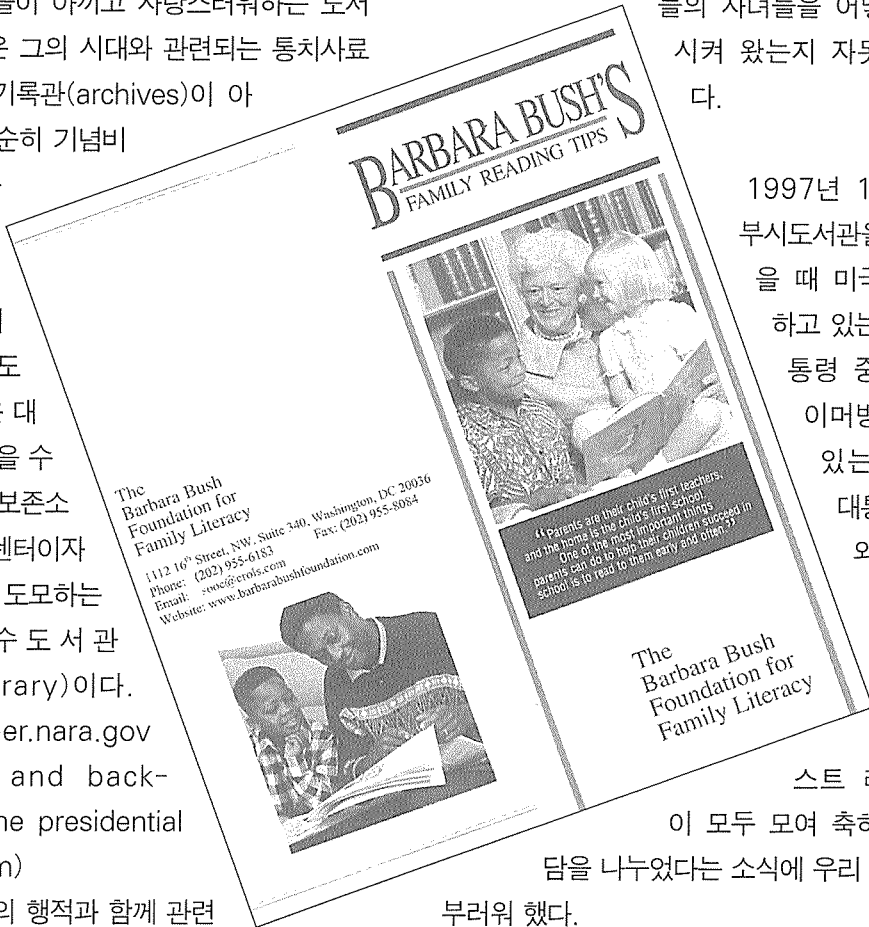
대조를 이룬다. 한번 더 비교하자면, 국내의 영부인(令夫人)들은 그 남편이 퇴임한 후 지금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왔는지 자못 궁금하다.

1997년 11월 6일 부시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미국에 생존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중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을 제외하고 생존하고 있는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었다는 소식이 우리 국민들은

부러워 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부러워 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부시여사가 독자적으로 그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교육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 나에게서는 더 큰 부러움이였다.

부시도서관을 찾으면, 방문객에게 도서관을 소개하는 전단지(leaflet)를 나누어준다. 몇 가지 전단지 안에는 부시여사가 활동하는 <바바라 부시 가정교육재단(The Barbara Bush Foundation for Family Literacy)>을 운영한다는 안내서가 있다. (www.barbarabush-foundation.com) 전단 첫머리에 부시여사가



“친구들에게”(Dear Friends)보내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왜 소리를 내어 읽어야 하는가?” (Why Read Together?) 그리고 “소리내어 읽는 비결”(Tips for Reading Aloud)을 적어 놓았다. 나는 네 쪽으로 접혀진 이 종이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그대로 접어 두었다.

그 후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 문서를 다시 볼 기회가 있어 자세히 보니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시여사가 독서 및 이동심리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가 직접 쓴 어린이 독서

교육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指針書)였다. 문장이 미국의 소시민을 위해 쉬운 글로 사례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었다. 부시여사의 이러한 활동내용은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새삼스럽게 온 사회가 어린이 독서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요즘, 한국의 젊은 엄마들과 ‘어린이자료실’을 맡고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 전문을 번역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왜 같이 읽어야 하는가? (Why Read Together?)

왜냐하면 같이 책을 읽는 것은 당신과 당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작업복과 부츠를 신은 젊은 아빠가 무릎에 딸을 앉히고 책을 읽어주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나는 내 딸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예쁜 옷들이요”라고 말했다. 나(Bush여사)는 “당신은 이 아이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이미 주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책을 읽어주고 있잖아요”라고 말해주었다.

독서전문가들은 왜 당신의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책을 읽어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쉽게 배운다

*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그들의 호기심, 상상력, 그리고 어휘력을 늘리는데 도움

WHY READ TOGETHER?

Dear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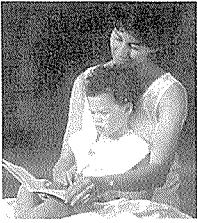
I'm so happy for this chance to share a message of enormous importance to every one of our families, of whatever size or shape. Learning begins at home, and reading with our children is one of the best ways to start them learning.

There is so much in print that is valuable for us and our children to read together. The real point is to keep reading — as much and as often as we can.

Reading helps us grow, food and heart. It gets children ready for school and helps them do better once they get there. It's a special time for children to be close to grown-ups who care for them — a wonderful way to feel loved. And it's a source of pleasure that's always available to us, now and throughout our lives.

Reading is one of my greatest joys, and I learned to love to read at home, as my children and grandchildren have. I could wish nothing better for you and your family.

Warmly,
Barbara Bush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has reported: "What parents do to help their children learn is more important to academic success than how well-off the family is."

이 된다. 집중력을 길러주고, 사고력을 증진시켜 주며 상대방과 대화를 성공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 독서한 내용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능력은 제반지식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어린이들에게 지금 책을 더 많이 읽어주면 나중에 스스로 독서를 할 때 그 지식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대화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게 되며 그 기회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작업으로 자녀들이 감성적으로 클 수 있게 되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어 준다.

*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독서가 당신의 가정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무엇보다, 아이들은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나의 친구는 아버지에 대해 가장 생생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매일 저녁 아빠 무릎에 매달려 만화책을 읽는 걸 들던 것이라고 했다. 전통은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며,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것은 대대로 물려나갈 훌륭한 전통이다.

소리내어 읽는 비결 (Tips for Reading Aloud)

1. 책을 읽어주는 습관을 만들어라.

제니퍼와 그녀의 아버지는 그들만의 밤의 의식이 있다. 저녁을 먹은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니퍼는 소파에 두 개의 베개를 엮는다. 그녀와 아버지를 위한 크고 작은 베개 하나씩. 제니퍼는 책을 가지고 오고 아버지는 독서등(讀書燈)을 켜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소중한 30분을 위해 자리를 앉는다.

당신이 자녀의 생활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을 정기적이고도 필수적인 습관으로 만들고자 할 때, 독서라는 것은 이를 닦는 것, 낮잠을 자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독서는 습관이 된다. 그리고 어린이가 가질 수 있는 습관 중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같이 책을 읽는 것을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내 남편 조지 부시(George Bush)와 나는 손자 손녀들이 방문할 때면, 아침에 우리를 깨워서 침대에서 같이 책을 읽자고 이야기한다. 애들은 모두 침대에 올라와서 같이 책을 읽는다. 우리는 침실의 서가에 어린이 책을 놔두고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되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들은 책을 읽을 때의 안락함을 사랑한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녀들을 당신의 팔

이나 무릎에 앉힐 수 있다.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신경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3.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몇 가지 방법.

- 책을 읽을 때 글자들 위로 손가락을 짚어가며 같이 움직인다.
- 아이들이 책장을 넘기게 한다.
- 교대로 글자, 문장, 페이지를 읽는다
- 책을 읽다 멈추고 다음과 같이 자녀들에 질문한다.
 “네가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기분이겠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니?”
- 그림을 보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어 준다. 자녀들이 목소리를 만들어 내게 한다.
- 글에 맞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야기를 살아있게 한다.

4.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라.

어느 젊은 어머니가 직장에 돌아가면서 14개월 된 아들을 부모에게 맡기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부모에게 하루에 최소 한번씩 같이 책을 보라고 부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책을 권 손을 뻗으며 그녀를 반기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에게 아주 즐거운 순간이었다.

가족이든, 친구이든, 부모이든, 아이를 잘 돌보아 주는 사람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사람이다. 만

약 탁아소에 맡겨야 한다면, 매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라.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였을 때는 교실을 방문하여 서가에 책이 많이 꽂혀있는지 다른 읽을 거리가 많은 지 확인해 보라. 그리고 나서 선생님에게 책을 읽어주시도록 부탁하라.

5.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라.

내 친구가 두 명의 소년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그의 새 지갑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라고 소년이 물었다. 소년이 자랑스럽게 지갑을 열어 1달러 지폐와, 그의 가족 사진, 야구팀 회원증, 그리고 ‘도서관 회원카드’를 보여 주었다.

공공도서관은 모든 종류의 읽을 거리를 가

TIPS FOR READING ALOUD

1. Establish a routine for reading aloud.

Jennifer and her father have their own nightly ritual. After dinner and before she gets ready for bed, Jennifer puts two pillows on the sofa — the big, old one for dad and the new, small one for herself. Jennifer gets the book, Dad turns on the reading light, and they settle down for the best half-hour of their day.

When you make reading aloud a regular, dependable part of your child's routine, you show that it's as much a part of daily life as brushing teeth or having an afternoon snack. Reading becomes a habit — one of the best your child can have.

2. Make reading together a special time.

George and I ask our visiting grandchildren to wake us up in the morning so that we can read with them in bed. They just climb up — the dogs too — and we all have a great time together. We keep children's books on the shelf in our bedroom, and we always let them choose what's read. While we are with them, we try not to permit outside interruptions.

Children love the coziness of reading a book together — and so will you. You can hold your child in your arms or on your lap. Let your child know that this is a time to count on your undivided attention.

3. Try these simple ways to enrich your reading aloud:

- Move your finger under the words as you read.
- Let your child help turn the pages.
- Take turns reading words or sentences or pages.
- Pause and ask open-ended questions like: “How would you feel if you were that person?”
- “What do you think might happen next?”

- Look at the illustrations and talk about them.
- Change your voice as you read different characters' words. Let your child make up voices.
- Keep stories alive by acting them out.

4. Ask others who take care of your children to read aloud.

A young mother recently told me about going back to work and leaving her 14-month old son with a sitter. She instructed the sitter to look at a book with the child at least once a day. Not long after that, the sitter arrived one morning to find the baby toddling to greet her with a book in his outstretched hands. It was a triumphant moment for everyone.

Whether family or friends or employees, good caregivers read to children. If you're looking for a day care center for your child, ask if the program includes daily reading to the children. When your child starts school, visit the classroom and look for well-stocked bookshelves and lots of other things to read. And you can ask if the teacher reads to the children.

5. Visit the library regularly.

A friend recently overheard a conversation between two young boys. One was showing the other his new wallet. “What's in it?” the first boy asked, and the proud owner opened it up to show a dollar bill, a picture of his family, a card from his Little League team... and a library card!

Public libraries are an endlessly rich source of all kinds of reading material, and regular visits are something you and your child can plan together and look forward to. You can help your children feel at home in the library, get to know the librarian, and check out books themselves. Knowing how to use the library is a skill — and a pleasure — that will serve your children well.

지고 있는 보물창고이다.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당신과 자녀가 같이 계획하고 기대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녀들이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느끼도록, 사서(司書)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할 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며 기쁨이다.

6. 자녀들에게 부모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어린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모델로 삼는다. 자녀들에게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면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여가시간을 독서에 투자하라. TV에서 돌아왔어 책을 들어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저녁을 먹거나 산책을 하면서 당신이 읽은 책에 대해 자녀들에게 이야기 해 주도록 하라.

7. 모든 종류의 것을 같이 읽어라.


책을 읽는 것만이 독서는 아니다.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것을 이용하라. 에컨대, 요리법, 통신판매 카탈로그, 게임 방법 매뉴얼, 씨 뿌리는 방법 이야기 등, 그리고 신문은 여러 가지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 일기예보에서부터 사진설명서, 스포츠기사, TV스케줄 등 우리 앞에 얼마든지 산적해 있다.

책을 선택할 때, 어린이 문학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 한다. 사서(Librarian)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읽을 거리를 제공하라. 즉 유명인사, 다른 나라 이야기, 문화, 과학, 모험, 신화적 동물, 그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무엇이든 좋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단순하고, 깨끗하고, 색깔이 많은 그림책을 선택하라. 어린이들이 관심과 취미를 시작점으로 삼아라. 내가 잘 아는 한 어머니에게 책읽기를 싫어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차를 아주 좋아해서 그의 어머니는 자동차 관련잡지를 구독시켜 주었다. 이후로는 아이가 한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만두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새로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읽는다. 아이들은 익숙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들이 기억력을 향상시켜 준다. 그래서 내가 내 손자들에게 읽어주는 책들은 너무 많이 읽어서 책장이 남아버린 것들이 많다. '어머 거위' 와 다른 전통적인 노래들은 읽어주기에 특히 좋으며,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하게 된다.

8. 집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만들어라.



6. Let your children see you reading.

Kids model their behavior after their parents'. If your children see you reading and enjoying it, they're more likely to follow suit. So spend some leisure time reading. Not an example by turning off the television and picking up a book. Over dinner or while running errands, talk to your children about things you've read.

7. Read all kinds of things together.

Not all reading takes place between the covers of a book. Use whatever is at hand — recipes, mail order catalogues, directions for assembling games or planting seeds. Newspapers offer a broad range of choices for daily reading aloud — from the weather report to photo captions to sports stories to the television schedule.

When you're choosing books, look for the best in children's literature. Your librarian can be a great help. Offer your children a variety of topics — famous people, other countries and cultures, science, adventure, mythical creatures, whatever might capture their imagin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look for picture books with stories and artwork that are simple, clear, and colorful.

Use children's interests and hobbies as

starting points. One mother I know had a very reluctant reader in her little boy. But he was fascinated by cars, so she subscribed to a magazine about automobiles, and soon the couldn't get him to stop reading!

Read old favorites as well as new stories. Children love familiar stories, and it helps develop memory skills. So many of the books I read to my own grandchildren are dog-eared and worn from being read over and over again. Mother Goose and other traditional rhymes and songs are especially good for reading aloud, and young children are eager to join in on favorite verses.

8. Fill your home with opportunities for reading.

Keep books, magazines, and newspapers all over your home, and take them with you when you travel. In addition to a bookshelf in your child's room, have print materials everywhere — on the kitchen table, by the bed, near the toys, even on top of the television. Give books every holiday season, and encourage relatives and friends to give books or magazine subscriptions as birthday gifts. Make your home a little library.

9. Keep reading aloud even after your children learn to read.

Parents — and educators too — sometimes feel that children over the age of seven or eight years old don't want to be read to. This really is not true. A teacher once told me about reading "Treasure Island" to her sixth grade class, starting with five minutes a day. The students took turns reaching the clock to tell her when to stop. It wasn't long before a great great would arise when the five minutes was up, and the students — even the "coolest" of them — would beg her to continue. Years later the teacher met a student who still fondly remembered those times in her class and was then reading the same book to her own children. In my opinion, you're never too old to be read to.

집안 여기 저기에 책, 잡지, 신문을 놓아두고, 여행을 할 때는 읽을 거리를 가지고 가라. 아이들 방에 서가를 두는 것 외에도 모든 장소에 읽을 거리를 두도록 한다. 식탁, 침대 옆, 완구 옆, TV 위 어디에도 좋다. 명절 때마다 책을 선물로 주고,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로 책이나 잡지 구독권을 주도록 부탁하라. 당신의 가정을 작은 도서관(small library)으로 만드는 것이다.

9. 당신의 자녀가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어도 계속 책을 읽어주어라.

부모, 심지어 교육자들도 때로는 어린이들이 7~8세가 지나면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 선생님이 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보물섬'을 그녀의 6학년 반 학생들에게 읽어주었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5분 동안 읽기를 시작하였다. 학생들이 교대로 시계를 보면서 5분이 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분이 되어 끝내야 할 때가 되면 아이들이 불만에 찬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좀 더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몇 년 후 그 선생님은 제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옛날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던 것을 아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아이들에게 지금도 똑같이 책을 읽어주고 있다고 하였다. 내 (부시 여사) 생각에는 책을 읽어 주는 데는 너무 늦은 나이란 결코 없는 것 같다.



나는 위의 글을 읽으면서 미국의 대통령은 그저 탄생되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그 뒤에는 도서관의 유용성을 이해하고, 사서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며, 독서의 무한한 힘을 활용할 줄 아는

퍼스트 마더(first mother)와 퍼스트 레이디(first lady)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